

한국학 原典자료의 체계화 작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基礎資料選集」 시리즈 外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이 발간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문연은 전통문화의 유산을 현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학문적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평가하겠다는 의도로 198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3대 '대계사업', 즉 「韓國思想史大系」 「韓國社會史大系」 「韓國學資料大系」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출간된 「고대편」은 「한국학자료대계」사업의 1차 결과를 간행한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자료 망라

「한국학자료대계」사업은 역사·어문·철학·예술·사회·민속·교육 등 한국학 전분야에 걸쳐 한국 민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원전자료를 선정·체계화하고 이를 해설·주석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간행된 「고대편」은 총16개 분야에 걸쳐 18명의 연구진(연구책임자: 李亨求)이 참여, 고려 이전 후삼국 및 발해까지의 관련 자료를 분야별로 종합하고, 이를 해설·주석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는 역사분야의 국내문헌에 李基東(동국대), 중국문헌에 李亨求(정문연), 일본문헌에 金廷鶴(前정문연), 그리고 정치·법제분야에 朴秉濠(서울대), 사회·민속분야에 崔在錫(고려대), 교육분야에 丁淳睦(영남대), 과학·기술분야에 朴星來(외국어대), 금석문에 鄭求福·李亨求(이상 정문연)와 許興植(경북대), 불교에 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대규모적인 기초 연구 분야에

비중을 두고 「한국학기초자료선집」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등을

연차계획으로 펴내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료편찬·연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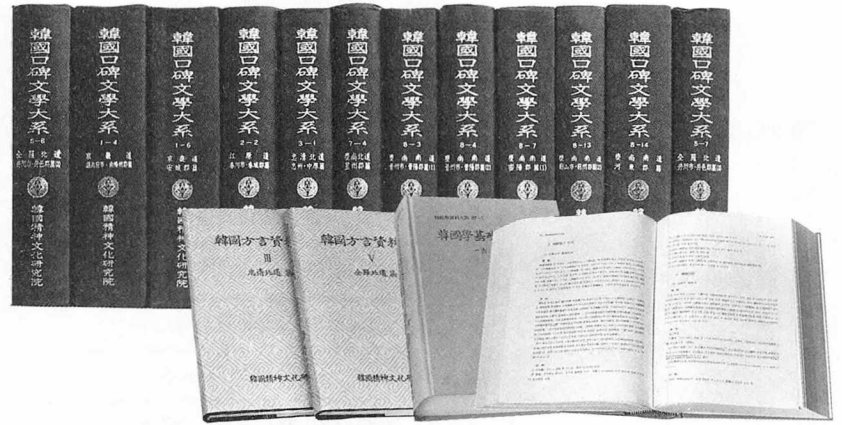
「국학의 총본산」이 되어주기를

학계는 바라고 있다.

翊普(동국대), 유교에 崔根德(성균관대) 도교에 車柱環(단국대), 한문에 金都鍊(국민대), 설화에 趙東一(서울대), 어학에 安秉禧(서울대), 음악에 宋芳松(영남대), 미술에 文明大(동국대) 등이다.

「고대편」의 대표적 원전자료로는 국내의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 「帝王韻記」 등과 중국의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및 일본의 「日本書紀」 「古事記」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서술방식은 기왕에 나와 있는 원전자료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료 하나하나를 解題·해설하여 자료 전체의 뜻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으며, 어려운 한문원전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줌으로써 초보연구자들도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혼동되거나 이견이 많은 용어, 地名, 官名,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관련학계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 「기초자료선집」은 한국사를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총11권의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후삼국과 발해까지의 고대편이 첫째권이고, 이어 고려시대를 다룬 「중세편」이 2권, 16세기 초까지의 「근세 I」이 2권,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근세 II」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근대 I」, 20세기 전반을 다룬 「근대 II」가 역시 2권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서점에 내놓은 「고대편」이 곧바로 품절상태에 들어간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국학의 기초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이 「기초자료선집」은 이 분야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에 마무리될 口碑文學大系

이와 아울러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오면서 정문연의 국학연구의

간판처럼 돼버린 「韓國口碑文學大系」가 올해로 완간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79권이 간행되었으며, 금년에 3권이 추가로 간행되고 별도로 색인이 간행될 예정이다.

원고분량만 해도 8만여장에 이르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향을 찾아보기 힘든 대사업인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이 작업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온 趙東一, 徐大錫(서울대), 曹喜雄(국민대) 세 교수의 노력과 열성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자료란 신화, 전설, 민담은 물론 민요·巫歌에 이르기까지 구비전승되어온 모든 문화재를 말하는데, 이들 자료는 기록된 것 이상으로 국민의 생생한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연구에 빼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는 문학 뿐만 아니라 사상, 언어, 역사, 음악, 사회 등 각 분야의 연구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 「한국구비문학대계」는 구비문학조사연구 계획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설화, 민요, 무가 등의 구비문학자료를 수집, 집대

‘한울’의 북한연구시리즈

북한기행· 재미 한국인 학자 9인이 쓴 80년대 북한

양성철·박한식 편저 — 239면·2,800원

통일민족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지 40여년, 그 단절의 세월동안 북한은 어떤 구조속에서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가?

북한사회의 재인식 1·북한사회의 객관적 해부

양호민 외 지음 — 342면·4,300원

북한의 이념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통일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을 담고 있다.

북한정치경제 입문·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

김일평 지음 — 152면·2,000원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 지배층의 정책노선을 분석한다.

분단의 정치·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

두 발은 한국에!
두 눈은 한반도에!



민족지성과 함께하는 도서출판 한울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53 금원빌딩 3층

TEL. 702-7571~2(영), 702-7573 (편)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의 역사적 근원은 무엇인가?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병오 지음

○주요내용○

- 제1장 민족의 비극 — 분단시대의 역사논리
- 제2장 전쟁과 휴전의 소용돌이
- 제3장 대결과 공존의 시대
- 제4장 4대국의 균형과 대립속의 한반도
- 제5장 통일을 향하여 — 통일논의와 통일전략



한국정치사의 ‘은폐된 진실’과 ‘왜곡된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민중적·민족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를 재조명함으로써 분단과 반민주주의, 중독과 반민족주의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과감히 극복하는 민족통일로의 길을 제시한다. 380면·4,000원

'책 반환' 강조주간

유럽의 어느 도서관은
시민에게 대출한 책을
돌려받기 위해 '책 반환' 강조주간을
설정하지는 캠페인을 벌였다.

빌어온 책으로 가득찬 집

20명이 3일 동안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많은 책(15000여권, 7차량분)을 갖고 있던 조셉 펠드만의 방 네개의 아파트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싱크대 위, 욕조 안에까지, 지나다니는 좁은 통로를 빼고 온실내가 책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책읽기를 좋아한다는 58세의 변호사인 그의 집이 알려지게 된 것은 소방관이 조사차 이곳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를 들른 데서 비롯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들의 대부분이 뉴욕의 공공도서관에서 빌어온 것들이었다고.

'빌린 책은 반환하자'는 캠페인

서구에서는 대개의 모든 도서관이 시민에게 책을 대출해주는데, 책 반환이 잘 안되자, 3월의 첫 1주일을 '빌려간 책 반환하는 주간(Return the Borrowed Book Week)'으로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고.

화장지에 인쇄된 영어교본

한 독일 회사에서 영어교본 26코스를 화장지에 인쇄하여 내놓았다. "당신이 조용한 곳에 있고 싶을 때, 그 곳에서 영어를 배우라"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였다.

어떤 문학상

술제니친은 빅(Bic)펜회사로부터 2000개의 볼펜을 상으로 받았다.

플로베르의 단편 '애서광'

「마담 보바리」를 쓴 플로베르는 「愛書狂」(Bibliomania)이란 단편소설을 썼다. 이 소설은 유일본인 책을 혼자만이 갖고 있다

고 생각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로 책을 뺏으려하다가 실패하자, 이윽고 한쪽 집에 불을 질러 책과 함께 상대방도 태워버리고 그 죄값으로 교수형을 받아 형무소 안 화장터의 연기로 화한다는 내용이다.

에덴동산에서 쓰인 언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말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17세기의 학자 앤드류 캠페는 주장했다. 신은 스웨덴어로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다고, 아담은 네덜란드어로 대답했으며, 뱀은 불어로 유혹했다고. 고대 이란의 전설에서는 에덴동산에는 세가지 말이 쓰였다고 한다. 아담과 이브는 가장 시적인 페르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했고, 뱀은 설득력있는 아랍어를, 가브리엘 천사는 터키어를 썼다고 한다.

새로운 형태의 사창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는 20달러를 지불하면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20분동안 세계의 에로문학의 몇 장면을 읽어만 주는 곳이 있다고. 물론 몸을 만질 수는 없고 특별요금을 내면 누드로 앉아 책을 읽어 준다. "사람들은 만지는 것엔 의외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에로틱한 소설장면을 예쁜 여자가 읽는 것에 더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설립자의 주장이다. 손님이 읽을거리를 가져오는 것도 환영하는데, 그 중에 에로소설이 아닌 「월 스트리트 저널」같은 전혀 엉뚱한 거리도 있다고 한다.

에즈라 파운드의 언어평

에즈라 파운드는 페르시아어 이외의 외국어를 이해했는데, 중국어가 가장 시적이고, 희랍어와 플로랑스 지방의 말이 가장 선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듀마의 글쓰는 습관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더 듀마는 항상 소설은 푸른종이에, 시는 노란종이에, 논픽션은 장미빛 종이에 썼다.

성한 것이다. 1980년 제1권 「서울시 도봉구 편」을 시작으로 일관된 기준과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거쳐 발간되어왔는데, 조사지역은 한 시군, 또는 한 군과 인근 시로 하고, 한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마다 각각 별권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권의 서두에는 조사지역 개관을 수록해서 해당 시군의 역사적 유래, 사회문화적 상황, 민속 및 구비문학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자료는 각 읍면 단위로 설화, 민요, 무가, 기타 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구비문학조사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수한 제보자를 발굴하는 일이다. 특히 현대화의 첨단을 달리는 대도시에서 그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자료를 구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그중 다양하게 수집된 설화는 관련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方言자료집도 전9권중 2권 펴내

이와함께 정문연은 또하나의 야심적인 기획으로 '전국방언조사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韓國方言資料集」으로 간행하고 있다.

金忠會(충북대), 李秉根(서울대), 李翊燮(서울대), 田光鉉(단국대), 崔明玉(서울대) 등의 학자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방언조사연구'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전달의 방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민족과 혈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1978년 10월부터 10개년 장기연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위원들은 조사항목들을 선

정하여 질문지 작성에 들어가는 한편 학계의 方言學 연구를 복돋기 위해 한국 최초의 방언학 전문지 「方言」誌를 출간하기도 했다.

1980년 7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 1985년 여름에는 군단위 조사를 모두 끝내고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한국방언자료집」은 한 도에 한 권씩 전부 9권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권 「충청북도편」과 제5권 「전라북도편」이 작년에 선을 보인 바 있다. 현재 제2권 「강원도편」과 제7권 「경상북도편」이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 방송매체의 확충과 보급으로 지역 고유의 방언이 점차 인멸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 이 사업은 국어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물론 언어사용의 지역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정문연의 국학 관계 출판물들은 대규모적인 기초연구분야에 비중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하는 일이나 국내의 자료를 통시적으로 섭렵하는 일은 방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투자가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일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의 출간을 계기로 정문연이 학자 개인의 힘으로는 이룩하기 어려운 중요한 국학연구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정부 하청연구기관'이란 일부의 비판을 씻고 '국학의 총본산'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남진우 기자

목판을 새기는 장인(匠人)의 마음

예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직접 옮겨 적거나, 한 글자 한 글자 목판을 새겨 찍어내곤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컴퓨터와 자동기계의 이용으로 순식간에 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만큼 책이 흔해진 요즘이지만, 그 대신 좋은 책을 구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책세상은 바로, 목판을 새기는 장인(匠人)의 정성으로 공들여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1110-099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복동 10-6 ☎ 732-1251~4

목판을 새기듯 공들여 만든 책세상의 책들

- 책세상의 한국문학선
 - 바비도/김성한 중단편집집
 - 전야제/서기원 대표중단편집집
 - 장한몽/이문구 장편소설
- 책세상 창작선
 - 화가 남궁 씨의 수염/하근찬 신작집
 - 시간을 위한 진혼곡/김민숙 창작집
 - 갈뿔/안정효 전작장편소설
 - 임격정에 관한 일곱 개의 이야기/조해일 연작소설집
 - 서울의 우울/김광규 엮은 공동시집
 - 절을 찾아서/고은 지은 문화기행집
- 학술총서
 - 한국고전 비평연구/전형태 지음
- 외국문학
 - 이방인/알베르 카뮈·김화영 옮김
 - 결혼·여름/알베르 카뮈·김화영 옮김
 - 사막/르 클레지오·홍상희 옮김
 - 꿈의 대학/사또레노·권오룡 옮김
 - 하녀 불기치기/로버트 쿠버 외·안정효 옮김
- 역사·철학
 - 철학의 오솔길/러셀 지음·김광식 옮김
 - 들어라 세계여 시대여/최일남 엮음
- 예술
 - 그 영혼의 푸른 불꽃/윌케·홍동선 옮김
- 사랑의 글·지혜의 글
 - 나에게 쓰는 편지/휴 프레이어·안정효 옮김